

과감한 투자·해외진출 지원... '스타트업 요람' 원동력

정부 인공지능 활용사업과 연계한 광주 추진과제

지난 2022년 기준 제1·2판교테크노밸리(이하 판교)에는 1622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 중 86.4%(1374개)는 중소기업, 7.8%(124개)는 중견기업, 3.8%(61개)는 대기업으로, 같은 해 기준 입주기업 총매출액은 167조7000억원에 달한다. 판교는 풍부한 인프라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초기 창업과 성장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판교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로 작용한다.

●기업 성장의 발판 '투자유치'

판교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기업설명회(IR)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성장하려면 자금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기준 판교의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전문가와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투자 교류회를 4회 개최했다. 해외진출 관련 기업 IR 컨설팅, 투자 상담회, 성공기업 사례 공유 및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 등을 지원한다. 판교 내에서 진행되는 IR 행사는 더욱 활발하다. 공공건물 내 입주기업이 업무 공간을 넘어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기회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 입주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예로 들면, 올해 남부권역센터는 창경센터에서 연간 △입주기업 대상 IR 행사 2회 △MAP지원사업 대상 미니 IR 투자컨설팅 5회, 기업육성총괄팀은 △경기도 내 창업 7년 이내 콘텐츠 창업기업 대상 IR 6회, 게임산업팀은 △경기도 내 게임사 대상 IR데모데이 1회 등을 개최했다.

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기관)는 신정기업을 대상으로 판교창업준에서 목요일마다(연 20~30회 이상) 주별 IR 행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 및 협회가 진행하는 IR 행사가 활발히 이뤄지며, 이는 입주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타지역 기업들을 판교로 유입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경기도는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을 위해 4개의 스타트업 펀드(G-펀드)도 신규 조성했다. G-펀드는 23개 펀드, 총 1조 2128억원 규모가 조성돼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미래성장 3431억원 △스타트업 2982억원 △소부장 1665억원 △북부 균형 300억원 △재기지원 600억원 등이 있다.

광주 AI(인공지능) 기업을 대상으로 IR 행사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펀드를 포함한 5000억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광주 AI 스타트업들은 이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방 특성상 IR 행사가 진행돼도 스타트업 투자로의 연결이 쉽지 않고 지역펀드 역시 수도권 등 외부 운용사를 이용해 빠른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6>'기업하기 좋은 도시' 판교의 비결

입주기업 1622곳 연 매출액 168조 기업설명회 행사 활발... 성장 '발판' 사업화·엑셀러레이팅·통번역 등 지원 공공주택·보증금 등 기업·청년 유입

AI 창업캠프에 입주해 있는 기업대표 A씨는 "지역기업 의무투자액이 정해져 있어도 리스크를 짊어지고 싶지 않은 운용사는 지역 스타트업 투자를 쉽게 진행하지 않는다"며 "결국 제조업 등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 있고 수익 창출이 곧바로 가능한 기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입기 어렵다.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기업에 투자 의사가 있는 투자사를 선별해 투자를 이끌고, 지역기업 투자 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의무 조항을 넣어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시장 한계... '글로벌 진출' 지원

글로벌 진출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내수 시장은 소비 규모와 성장에 한계를 지니고 있어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성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판교 입주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유망 스타트업을 144개사 발굴, 투자유치 539억원, 해외매출 및 계약 358만달러, 우수기술력 인증(CES 혁신상, 에디슨 어워드 등) 23건, 해외특허 35건, 국내특허 92건, 해외법인설립 10건, 신규고용 170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중 글로벌 진출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비는 총 9억5000만원으로, (시)제품 개발비, 지적재산권 지원비, 판로개척비 등을 지원했다. '글로벌 진출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글로벌 진출 희망 스타트업 중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전문적인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성공기업 사례 공유 및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 국내외 투자자·스타트업 기업 간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는 약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2개사를 지원했으며 6개사가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통번역지원사업'도 인기가 높다. 판교입주기업(기관)은 모두 이용 가능하며, 올해에는 사업비 1억9000만원으로 지난 9월까지 영어(통역57건·번역149건), 중국어(통역9건·번역33건), 일본어(통역1건·번



판교는 풍부한 인프라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판교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로 작용한다. 사진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콘텐츠·ICT 초기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MAP 3기' 성과공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제1판교 공공건물 스타트업캠퍼스 내 오픈형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역41건) 등 총 286건을 지원했다. 광주시도 지난 2013년부터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집 대상이 △최근 3년간 광주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 △3년 이하의 신규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은 △2022년 4000만원 △2023년 3600만원 △2024년 2600만원 등으로 줄고 있다.

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해 있는 U기업 대표는 "내수시장 한계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필수적이다"며 "판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통번역 지원사업'의 발빠른 대응도 글로벌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일터'와 '삶터' 균형 이루는 공간

혁신클러스터로 자리 잡은 판교에도 고민은 있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일터와 삶터가 분리된다는 점이다. 이에 경기도는 제3판교에 워라밸파크, 메타광장, 스포츠콤플렉스, 공공주택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편의시설 부족 및 주거 문제를 해소해 기업과 인재의 유입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거'라고 할 수 있다. 안정된 주거 환경이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이끌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교의 경우 집값이 매우 비싸서 직원들이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등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에 경기도는 주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과 청년의 유입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착공 예정인 제3판교에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이 지어진다. 주택계획은 모두 3672호이며, 그중 2336호(63.6%)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제3판교에는 공공기숙사 1000호 건설도 예정돼 있다.

경기도는 판교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보증금 지원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총 9억원으로, 1실당 최대 3000만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을 지원(이행보증수수료 100% 지원)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중견·중소기업 임직원(만 39세 이하) △주거지역 이주 시 소재지가 경기도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 최대 4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며 올해 총 30실이 제공됐다. 해당 사업은 모집일 기준 빠르면 3~4개월 만에 예산이 소진될 만큼 인기가 높다.

이 같은 주거단지 조성 및 주거지원 사업은 판교 취업 및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직원들의 주거 지를 판교로 옮김으로써 일정 기간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과 삶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해 누구나 판교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 청년 인재들을 유입해 기업이 따라오는 효과도 누린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지원사업 등의 주거지원 방안들이 청년들을 유입하고 인재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청년이 오면 기업이 오고, 기업이 오면 청년이 오는 선순환 구조, '직주락'이 함께하는 판교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나다운·박찬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작은 농촌마을서 첨단 기술산업 메카 '우뚝'

판교테크노밸리 성장 과정

2004년 산단 조성 등 개발 본격화 입주 시작 4년만에 1천개 기업유치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판교테크노밸리(이하 판교)는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지닌 땅이었다. 지난 1975년 남단 녹지로 지정된 후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관리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첨단 기술 산업의 심장부로 자리 잡은 판교는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했을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발표한 '판교테크노밸리 성장 원동력 분석' 등에 따르면 판교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지난 1990년대부터다. 1995년, 경기도 성남시 민선 1기 초대 시장은 인구 17만 명

을 수용할 수 있는 판교지구 주거 전용 신도시 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성남상공회의소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발주하고 경원대 소진광 교수가 연구한 결과(1996)는 성남시의 도시기능을 재편하고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서판교 일대에 110만평 규모의 연구개발단지를, 동판교 일대에 1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의 마지막 개발 가능지구인 판교를 침상도시(bed town)로 개발할 경우 단순 소비도시로 전락, 경제기반이 취약해질 것을 우려한 내용이다.

이에 성남시는 연구 결과의 일부를 반영해 1998년 도시기본계획에서 판교지역 210만평을 개발예정지로 지정, 추후 주거 용지(190만평)와 첨단

산업단지(20만평)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며 판교개발 방향을 선화한다. 이후 2001년 개발계획안 확정, 2004년 판교신도시 실시계획이 승인(판교테크노밸리 20만평 특별계획구역 지정)되고 2006년 본격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이 시작됐다.

판교에 IT기업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후부터다. 엔씨소프트, 넥슨, 네오위즈 등의 대기업들이 2013년경 판교에 들어섰으며, 2015년에는 IT·BI·CT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업들을 1000여개 유치했다. 본격적인 기업 입주가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것이다.

판교의 성장요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지자체가 판교개발 계획과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입지 요인이 뛰어난 지역 용지를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면서 조기 분양과 조기 입주를 실현했다. 또 판교 입주기업 업종

을 IT 및 IT 관련 R&D 융복합 분야로 제한하며 판교가 타 지식기반산업단지와 차별화된 산업단지로 성장하도록 했다. 민간 주도 개발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단지설계도 한몫했다. 경기도는 전체 용지를 기능별(초청연구, 일반연구, 연구지원)로 나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는 "지역 용지를 원가 수준으로 공급해 기업을 유치하고, 업종 제한을 둬서 차별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지자체의 노력이 판교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나다운·박찬 기자

